

제6차 인천전략 워킹그룹회의 결과자료



목 차

1. 회의 개관	1
2. 회의 주제	2
3. 회의 세부내용	3
가. <의제 1, 2, 3>	3
나. <의제 4> 제5차 워킹그룹회의 결정 및 권고사항 이행 검토 ...	3
다. <의제 5> 판데믹 맥락에서 장애인 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COVID-19와 장애인에 관한 토론	4
라. <의제 6>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의 최신 진전사항 검토	6
마. <의제 7>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의 자원 동원 검토	9
바. <의제 8>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의 종결을 위한 준비	9
사. <의제 9> 다음 회의 개최일 및 장소	11
아. <의제 10> 기타 안건	12
자. <의제 11> 폐회	12
4. 관련사진	13



제6차 인천전략 워킹그룹회의 결과자료

인천전략 워킹그룹회의

- ▶ 아·태지역 15개국 정부 및 15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2013-2022'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UN에스캅 회원국 및 준회원국에게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회의임.
- ▶ 2014년 제1차 인천전략 워킹그룹회의(이하 워킹그룹회의)부터 매해 대면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이례적으로 올해 제6차 워킹그룹회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회의로 진행됨.

1

회의 개관

가. 회 의 명: 제6차 인천전략 워킹그룹회의 (Sixth Session of the Working Group on the Asian and Pacific Decad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3-2022)

나. 회의목적

- 제5차 워킹그룹회의 결정 및 권고사항 이행 검토
-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 이행 사항 검토 및 종결을 위한 준비과정

다. 회의주최: UN에스캅 사회개발국(태국 방콕 소재)

라. 회의일시: 2020. 9. 24.(목) ~ 25.(금)

구분	방콕시간	한국시간	회의내용
1일차	2020. 9. 24.(목) 10:00 AM ~ 13:30 PM	2020. 9. 24.(목) 12:00 PM ~ 15:30 PM	- 개회 - 의장단 선출, 의제 채택 - 의제 4~6 진행
2일차	2020. 9. 25.(금) 09:50 AM ~ 12:15 PM	2020. 9. 25.(금) 11:50 AM ~ 14:15 PM	- 1일차 결정 및 권고사항 재정리 - 의제 6~8 진행

마. 회의방식: 마이크로소프트 팀즈(Teams)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회의 진행

바. 참석인원: 약 70명(발표자 및 참석자, 참관인 합계)

사. 참석경과

회의 초청 서한 수령	▶	참가신청서 제출	▶	본 회의 참석 (온라인)
7. 20.(월)		~ 8. 17.(월)		9. 24.(목) ~ 25.(금)

2

회의 주제

○ 회의의제

의제 1	개회
	Opening
의제 2	의장단 선출
	Election of officers
의제 3	의제 채택
	Adoption of the agenda
의제 4	제5차 워킹그룹회의에서 발의된 결정 및 권고사항 이행 검토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decisions and recommendations emanating from the fifth session of the Working Group
의제 5	팬데믹 맥락에서 장애인 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COVID-19와 장애인에 관한 토론
	Discussion on COVID-19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initiatives to protect and empowe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context of the pandemic
의제 6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의 최신 진전사항 검토: 인천전략 목표 1(빈곤 감소 및 고용 전망의 증진) 및 6(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보장) 관련
	Review of recent progres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Asian and Pacific Decad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3-2022
의제 7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의 자원 동원 검토
	Review of resource mobilization for progress in the Asian and Pacific Decad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3-2022
의제 8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의 종결을 위한 준비과정
	Preparatory process for the conclusion of the Asian and Pacific Decad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3-2022
의제 9	다음 회의 개최일 및 장소
	Date and venue of the next regular session
의제 10	기타 안건
	Any other matters
의제 11	폐회
	Conclusion

가. 〈의제 1, 2, 3〉

○ 〈의제 1〉 개회

- 스리니바스 타타 사회개발국장 개회사
 - 올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최초로 화상회의로 진행함. 코로나로 인해 장애분야에 감염병 대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번 회의를 통해 워킹그룹 회원국 및 시민사회단체가 다양한 장애포괄적 코로나 극복 방안을 개진해주기 바람. 또, 인천전략이 2년 남은 시점에서 다음 10년을 위한 준비사항을 논의하는 시작점이 될 것인바, 다각도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 〈의제 2〉 의장단 선출

- 중국장애인연합 쉬 리양 의장, 아태여성연합 아비아 아크람 부의장 선출

○ 〈의제 3〉 의제 채택

- 기존 잠정 의제와 동일하게 채택

나. 〈의제 4〉 제5차 워킹그룹회의 결정 및 권고사항 이행 검토

○ 에스캅 사무국 이행현황 보고

- 사회개발국 아이코 아키야마 사회담당관
 - 제5차 워킹그룹회의 에스캅 사무국 이행 결정 및 권고사항을 공유함.

○ 워킹그룹 회원 이행현황 보고

- 한국 정부: 지난 워킹그룹회의 개최 이후 현재까지 인천전략이행기금사업의 성과를 공유함. 제2기 에스캅 협력사업 협약 진행, 미얀마 국별협력사업 실시, 장애인식개선 해외봉사단 진행, ‘10가지 원칙’ 국문 번역 및 자료 발간·SNS 이벤트 개최 등 내용을 보고함.
- DPIAP(아태지역국제장애인연맹): 한국 DPI의 웨비나“코로나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 내용을 보고하며, 인천전략 종료 이후(2023년부터)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에 있어 장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피력함.
- 인도 정부: 장애인 5백만 명에게 ID 카드를 지급하여 데이터 분석을 가능케 한 성과와 수어 훈련센터 건립 및 수어 사전 제작을 보고함. 장애포괄적 코로나 가이드 라인을 배포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물과 음식 등을 지급했음.

- APCD(아태지역장애개발센터): 장애인을 고용하는 베이커리 카페 개소 등 장애포괄적 사업 진행 내용을 공유함. 자폐장애인 관련 시각자료를 발간하였고, 자폐장애인 중심으로 스포츠 및 훈련을 실시하였음. 몽골 울란바토르 지역과 협력도 강화하였음.

다. <의제 5> 팬데믹 맥락에서 장애인 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COVID-19와 장애인에 관한 토론

○ 에스캡 사무국 기조 발표

- 사회개발국 스테파니 추 컨설턴트: 장애인에 관한 코로나 상황 및 권고사항(6개)의 개요와 지난 7월 한국재활협회가 에스캡을 통해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고자 새롭게 시작한 장애인 보호 및 역량강화 지원 사업(장애포괄적 코로나 대응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및 씨드 펀딩을 통한 소규모 시범사업 실시 등)을 소개함. 에스캡 회원 49개국 중 44개국이 코로나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현금 지원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짐. 의료 시설에 수어통역사를 배정, 장애인 활동지원사 배정,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지원금 지급 등이 진행됨. 워킹그룹 회원들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장애인 역량강화 경험을 공유해주기를 청함.

○ 워킹그룹 회원 토론

- 인도 정부: 정부 차원에서 정신보건관리 헬프라인 개설함. 도움이 필요한 이가 헬프라인에 전화를 걸면, 초기 진단을 통해 문제를 사정하고 관리에 착수함. 힌디어, 영어를 포함하여 13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함. 정신보건관리와 관련된 여러 부처 및 단체(장애인고용부, 국립정신보건재활원, 국립다중장애인고용원 등)와 협력하여 진행 중.
- CDPF(중국장애인협회): 팬데믹 관련 정보와 예방법 등을 영상, 오디오북, 수어북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배포함.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며, 장애아동에게는 물과 음식을 지원함. 그밖에 장애인 대상 직업재활훈련을 제공하는 등 코로나 이후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 중.
- WFDAP(세계청각장애인연맹): 청각장애인들은 정보통신기술 접근성이 낮아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됨. 청각장애인을 위해 영상자료에 대한 자막 지원이 있으나 문맹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기도 함. 코로나 정책 및 대응에 있어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특히 국제수어에 대한 접근성이 높지 않으므로 각국의 수어가 다양하게 제공되기를 바램.
- DPIAP(아태지역국제장애인연맹): UN과 협력하는 아태지역 장애인단체 중 가장 국제적이고 규모 있는 단체임. 코로나 상황에서 장애인에게 가장 긴급한 이슈로는 고용, 생필품 공급 등이 있음.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장애인 고용 문제에서 장애인고용을 하고자 하는 고용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 특히 여성장애인 고용 문제가 심각하며, 중증장애인,

자폐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니즈가 어려움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다룰 수 있어야 함.

- 방글라데시 정부: 총리가 지방정부 관계자들을 모아 재난대응체계에 대해 논의하였음. 특수학교·중증장애인 대상 지원금 제공, 자가 방문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 지원 중임. 코로나 감염자 발생 시 병원 이송을 지원하며, 총리의 적극적인 리더십으로 팬데믹 상황에 잘 대처하고 있음.
- WNUSP(세계정신보건서비스이용자및피해자네트워크): 정신병원 폐쇄병동 집단감염 사망사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함. 한국에서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지난 3월 26일 정신장애인을 위한 대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국내외 장애인단체와 함께 발표하였음.
- 슈초나재단(Shuchona Foundation): 재단은 스트레스 및 걱정 관리 등을 지원 중임. 방글라데시 수어를 활용한 서비스를 유튜브 채널에 등록하여 운영하고, 정신보건 전문가와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 노력 중임. 방글라데시에는 정신과 의사가 적고, 웹 접근성도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튜브를 활용함. 또한 장애인의 의사소통 이슈는 민감하게 접근해야 하며, 에스캅에서도 장애포괄적 코로나 대응 웹 페이지 구축 시 이 부분을 고려하기를 바램. 장애유형 중에서도 자폐장애를 위한 소통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동에 제약이 있고, 자폐 아동의 가정에 대한 재화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한을 해결해야 함.
- 데이지 컨소시엄(DAISY Consortium): 팬데믹 상황에서 ‘정보’가 아주 중요해진바, 정보 접근성과 관련하여 컨소시엄에서 노력 중. 에스캅에서 씨드 펀딩 사업을 시작하여 기쁘고, 이러한 기회가 늘어나기를 바램. 컨소시엄은 현재 장애인의 재택근무를 가능케 하는 IT 인프라 구축 중인데, 이를 잘 사용하기 위한 온라인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접근 가능한 양식의 자료 제공도 필요함.
- WBUAP(세계시각장애인연맹 아태지역): 시각장애인을 위한 핫라인 운영 중임. 팬데믹 대응을 위한 웨비나도 개최함. 코로나는 시각장애인에게 엄청난 어려움으로 작용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고, 생필품 및 식료품 구입도 어려움. 개별적 지원이 필요하며, ICT 기술로 사람들과 연결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 접근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특히 업무 시스템에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해결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시각장애인 이동 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접촉에 대비하여 위생용품 배부에 우선순위를 두려 함. 또한, 동북아·동북아 거주 시각장애인은 마사지가 주 수입원인데,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가계에서 곤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사모아 정부: 사모아는 코로나 청정지역임. 대중미디어 캠페인, 국외 출입자 검사, 취약계층에 대한 아웃리치 프로그램 실시, 지역사회 촌장에게 인식교육 실시, 수어 서비스 지원, 음식 지원, 장애인 부양가정 지원하며 예방 조치를 강조 중임.

라. <의제 6>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의 최신 진전사항 검토

○ 에스캡 사무국 기조 발표: 목표 1(빈곤 감소 및 고용 전망의 증진)

- 바바라 머레이(고용 관련 선임 장애 전문가)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동화 시스템 등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많이 줄어들었음. 또한 고학력자를 선호하는 사회에서 장애인 취업은 더욱 어려워짐. 보조기기에 많은 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접근성이 향상된 것은 장점이나, 사회적 보호는 여전히 부족함.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장애인 의무고용(의무고용 미준수 시 패널티), 장애인 직업훈련 및 고용 자금 지원 등 지역적 차원에서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음. 또한 UN 장애인권리협약에 의거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마련됨에 따라 법률상 차별은 많이 감소했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 있음. 지속 가능한 고용을 위한 규정 또는 법률을 가진 국가는 2개국에 불과한 상황임. 향후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고용을 위해서는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급이 필요함.
 - 장애인 직원 고용을 위해 고용주에게 기술적 지원도 아주 중요함. 많은 국가들은 자영업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보조기기 활용 방법이 안내되어야 함. 15개국의 보고에 의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재활훈련에 접근성이 부족하다(3.4%만이 접근성 보장)고 지적됨. 특히 교통, ICT 접근성 증진이 필요하며 공공건물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 부족함. 어떻게 정부가 고용주들과 더 잘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워킹그룹 멤버들의 의견 공유를 청함.

○ 워킹그룹 회원 토론

- CDPF(중국장애인협회): 중국 정부는 2022년에 빈곤 감소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2016년부터 CDPF와 함께 지역사회의 빈곤 감소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음. 2018년 빈곤경감전략 3개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관련 법·규정을 강화하여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것이 목표임.
- DPIAP(아태지역국제장애인연맹): 코로나로 인해 장애인이 자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속이 우려되는 상황임. 활동지원사가 감염되었을 위험 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임. 의료지원 영역인 헬스케어에 반드시 장애인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무실에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도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고용이 강화되어야 함.
- 말레이시아 정부: 코로나 이슈에 집중하여, 지역 기반 재활, (장애인 대상)훈련, (장애인 관련)단체 및 센터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함. 마사지업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더욱 큰 문제에 당면함.
- RIAP(세계재활협회 아태지역): 1980년대 이후 대부분 아·태지역 국가는 장애인 고용 강화를 위한 법률은 갖추었으나 해당 법을 실현할 수 있는 곳에서만 실행해옴. 또한

법과 현실 사이 괴리가 있음. 기술 분야에서 장애인은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고, 현대사회의 기술은 너무 빠르게 변화 중임. 빠르게 변화하는 시류와 IT 기술의 발전 환경에서 장애인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기술 격차를 어떻게 좁힐지도 고민해야 함.

- 방글라데시 정부: 방글라데시는 빠른 경제성장을 경험하며 장애인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후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함. 교육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고등교육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며, 고용과 관련해서는 교육과 불가분하다 판단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운영 중임. 이외에도 장애인 대상 ICT 훈련을 제공하며,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운영 중임. 태국과 같이 공공영역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의무고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봄.

○ 에스캅 사무국 기조 발표: 목표 6(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보장)

- 사회개발국 스테파니 추 컨설턴트
 - 동 목표는 ‘장애소녀 및 여성장애인이 개발 기회에 동등하게 접근’ 등을 포함한 세부목표 4가지가 있음. 현재 3억 5천만 명의 장애소녀 및 여성장애인이 아·태 지역에 거주 중이며, 이들은 성별·직업적 편견에 의한 고용에서의 차별 때문에 코로나 맥락에서 더욱 취약한 상황임.
 - 여성장애인의 재생산권 관련, 전문 의료진에 의한 출산이 아닌 경우가 30%에 육박하고, 22%는 피임에 대한 수요가 만족되지 못함. 출산 관련 서비스에 대해 경제적, 정보적, 물리적, 법적 장애물이 존재함. 여성장애인들은 비장애인 여성보다 폭력 위험성이 2배가량 높고, 특히 성폭력은 가까운 가족이나 주변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는 자가격리 시에 활동지원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있음.

○ 워킹그룹 회원 토론

- 중국 정부: 여성인권보호법 및 국가계획에 의거하여 장애소녀 및 여성장애인을 포괄함. 여성장애인의 고용 및 수입 확대 방안 관련 중국여성장애인연합은 지난주에 성명서를 발표하여 국제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 APWWDU(아태여성장애인연합): 여성장애인은 사회심리적 문제들을 많이 겪으며 정보 접근도 어렵고, 정치적 참여도 동등하게 보장받지 못함. 정부와 단체의 집합적 노력을 통해 범분야적으로 해결해야 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접근 가능한 형태로 톨킷, 자료 배급이 이루어져야 함. 정치포럼 등 국제행사를 통해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다양한 국제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여성장애인 이슈를 더욱 활발히 논의해야 함.
- RIAP(세계재활협회 아태지역): 여성장애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찾기 힘들고, 이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됨. 한국에서는 여성

장애인을 의사결정그룹에 진출시키기 위해 노력 중으로 현재는 시각장애여성과 지체장애여성(휠체어 사용자)이 국회의원이 되었음. 이들이 여성장애인을 위한 목소리를 높여줄 것을 기대함. 에스캅 측에 여성장애인 그룹이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함.

○ 에스캅 사무국 기조 발표: 목표 7(장애포괄적인 재난 위험 감소 및 관리의 보장)

- 사회개발국 아이코 아키야마 사회담당관
 - 아·태지역은 특히 재난에 취약하며 장애인의 사망률은 비장애인 사망률보다 2~3배 높음. 목표 7은 '장애포괄적인 재난 위험 감소 계획 강화'를 포함한 2개의 세부 목표를 가짐. 이 부분에 대한 옹호활동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음. 여전히 재난 위험 감소에 대한 정책(대책)을 갖고 있는 국가는 적으며, 여전히 재난 이후의 낙인으로 장애인들은 어려움을 겪음.
 - 정보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물리적 접근성도 마찬가지임.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은 어려웠지만, 재난 상황에서는 더욱 심각함. 접근성 관련 좋은 사례들이 도출되고 있긴 하나, 여전히 많이 필요한 상태임.
 - 운송수단 및 피난처 사용이 불가능하기도 하며, 재난 이후에 장애소녀 및 여성 장애인은 더욱 성적 폭력 등에 노출되기가 쉬움. 재난 이후에 장애인들은 식료품을 구하는 데도 비장애인보다 더 어려움을 겪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장애 관점을 주류화 하는 노력이 필요함. 결국 수립된 정책을 어떻게 장애포괄적으로 접근할지에 대한 고민과 어떻게 지역사회 다부문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토론을 요청함.

○ 워킹그룹 회원 토론

- 일본 정부: 일본은 에스캅과 30년 이상 협력했으며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의 주도국이기도 했음. 일본은 민관협력을 통해 시민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노력 중임. 또한 인천전략과 연결하여 장애포괄적 자료를 개발하고, 기술 및 지식을 공유하고자 노력하며 예산의 일부를 여성장애인의 기업가정신 교육 등 사업 진행 중임. 현재 15억 달러 규모의 시민사회 지원 사업 진행 중.
- APCD(아태지역장애개발센터):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장애인의 재난 위험 감소 및 대비를 위한 훈련을 진행하고, 지역사회 및 장애 관련 센터와 협력하여 재난 시 장애인 포괄 방안을 교육했음. 또한 공무원 300명이 방문하여 재난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교육 받음. APCD는 또한 JICA(일본국제협력기구)와 협력하여 에스캅에서 재난 위험 감소 사업을 3년 동안 진행해왔으며 현재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음.
- ADN(아세안장애네트워크): 아동, 성인 자폐성 장애인은 특히 가족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장애 아동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훈련을 지원함. 재난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많은 장애 유형 중에서 지체장애인뿐 아니라 정신, 지적 장애인 까지 포괄하는 노력이 필요함.

- RIAP(세계재활협회 아태지역) 홍콩: 다부문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아이코의 말에 공감함. 접근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도 물론 필요함. 이에 RIAP는 재난 위험 감소 관련 TF를 6개월째 운영 중임. 웹사이트를 구축 및 운영하며 여기에 코로나 관련 정보를 업로드 함. 또한, 디자인 전문가와 협력하여 아시아 21개국에서 다양한 장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 중임. 이 의제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기 위해 매년 회의를 개최함. UIA(국제건축가연합)와 협력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확보를 위한 노력 중임.
- 방글라데시 정부: 방글라데시는 자연재해를 포함하여 여타 재난에 대한 대응에 성공 사례를 갖고 있음. 주변국에 비해 재난에 있어 인명 피해가 적은 편임. 가정 자체에 개입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임. 좋은 사례에 대한 연구가 에스캡 차원에서 이루어 지기를 희망함.

마. <의제 7>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의 자원 동원 검토

- 사회개발국 아이코 아키야마 사회담당관: 아·태지역 다자간 신탁기금에 대한 경과보고 진행함. 현재까지 한국 1,899,000 USD, 중국 500,000 USD, 일본 200,000 USD, RI 200,000 USD 순으로 예산 지원함. 기금은 에스캡 회원국들의 기술적 지원, 연구, 역량강화, 접근성 지원 및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됨.
- 한국 정부(개발원): 2020년 인천전략이행기금 공모사업을 소개 및 홍보함. 인천전략 워킹그룹 회원 단체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모사업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함.

바. <의제 8>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의 종결을 위한 준비

○ 에스캡 사무국 기초발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의 종결 준비 과정

- 사회개발국 차이차이 여성평등사회포용과장
 - 지난 30년 동안 에스캡은 국제개발 내 장애 특정적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 왔음. 제1차 아·태장애인 10년의 어젠다 포 액션(Agenda for Action),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의 비와코 새천년 행동계획(Biwako Millennium Framework) 및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의 인천전략과 베이징 행동계획(Incheon Strategy and Beijing Action Plan) 이니셔티브들이 그러한 주도권의 원동력이 됨. 제1차 10년은 장애인의 역량강화, 제2차 10년은 장애인의 권리향상, 제3차 10년은 장애인의 권리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워킹그룹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옴.

- 그러나 인천전략 이행이 불평등하게 진전되었고, 수집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며, 장애인권리협약과의 조화를 위한 국내법 도입 및 강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등 미해결 과제들이 존재함.
-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의 순조로운 종결을 위해, 2021년에는 지역 차원의 이해관계자 워크숍(제3차 10년 종결 및 Post-2022 관련)을 진행하고, 특히 2분기에 제7차 인천전략 워킹그룹회의를 개최하여 신규 이니셔티브를 공개할 계획임. 2022년 상반기에는 2023년 이후의 움직임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끝으로 2022년 4분기에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종료를 위한 정부 간 고위급 회의를 개최할 것임.
- 동 회의 개최 전 6개월 동안 모든 회원국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여 인천전략 이행 현황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여 도출된 답변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할 계획임. 평가 결과를 토대로 2023년부터의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자 함.

○ 워킹그룹 회원 토론

- 몬티안 분탄 장애인권리위원 겸 태국 하원 국회의원
 - Post-2022를 볼 때, 우리는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해 활용 가능한 도구(장애인 권리협약 등)를 보유하고, 그 이행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함에도 사실 만족할 만큼의 자원이 확보되지는 못했음.
 - 장애주류화를 위해서는 인권 기반 접근이 여느 때보다 중요한데, 현재 우리는 너무 많은 정책보고서들을 복제하듯 발행하고 있음. 장애는 사회복지 어젠다 하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지만, 이제는 경제 어젠다에 중점을 두어야 할 때임. 장애인 당사자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큰 기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장애 통계 관련, 자발적인 빅데이터 개발이 필요함.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기술적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DPIAP(아태지역국제장애인연맹): 에스캅 워킹그룹 회원들은 2021, 2022년에도 인천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지역차원 이행 노력을 지속하기를 요청함.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권리협약 비준국의 국내 차원의 이행(법률 제정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국제협약의 이행 강화를 위해서 종합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이를 적절히 모니터링,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함. 2021년 제7차 인천전략 워킹그룹회의에서 이러한 평가가 다루어지기를 바램.
- APWWDU(아태여성장애인연합)
 - 인천전략 이후 많은 진전이 있었고, 많은 국가들이 현재도 열심히 일하고 있음. 특히 풀뿌리 차원(지역적 차원)의 발전을 볼 수 있었음. 이러한 내용들은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어야 함에도 잘 공유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근래 연구를 보면 장애에 관한 사회적 모델, 인권 기반 접근보다 아직도 의료적, 자선적 모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도 많음.

- 여성장애인은 아직도 정치적 리더십 등 다양한 부분에서 참여가 제한되어 있고, 여성장애인 관련 분리된 통계도 없는 상황이거나 있어도 신뢰하기 어려움. 여성장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한 UN 차원의 TF 구축을 요청하고자 하며, 정부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하여 여성장애인 권리 어젠다를 다뤄주기를 바람.
- 방글라데시 정부: 몬티안 분탄 위원이 말씀하신 데 공감하며, 방글라데시도 2022년 이후 그러한 노력을 이어가겠음. 방글라데시는 총리의 주도 하에 장애인에 대한 개입을 진행하며, 장애 친화적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임. 국가별로 장애 포컬 포인트를 만들어주시고, 그 포컬 포인트가 부처에 데이터를 제공하여 장애 통계를 보강할 수 있도록 체계를 조성해주기를 청함. 그리고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방식(예: 스카이프 등)으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람.

○ 사회개발국 발언

- 스리니바스 타타 사회개발국장 코멘트
 -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 이후 다음 10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간극이 있는지, 어떤 도전 과제들이 남아있는지를 알아야 함. 또한 장애 이슈를 사회복지 부문에서만 다룰 게 아니라, 다부문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함. 이는 에스캅의 모든 일을 장애주류화 하는 작업과도 연결됨.
 - 에스캅뿐 아니라 모든 유엔 기구가 지역적 차원에서 진전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결론적으로 장애특정적 접근에서 장애주류적 접근으로의 이동을 이루어내야 할 것임. 지역적(regional)→하위지역적(sub-regional)→현지(local) 차원으로 점진적으로 좁혀나가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다음 제7차 워킹그룹 회의 때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람.

사. <의제 9> 다음 회의 개최일 및 장소

- 중국장애인연합 쉬 리앙 의장 진행
 - 내년엔 대면 회의가 가능할지 예측할 수 없으나, 동 워킹그룹회의는 에스캅 본부가 위치한 방콕에서 개최되지 않는다면 개최를 희망하는 국가 또는 단체에서 100% 자부담으로 진행해야 함.
 - 제안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내년 3분기에 태국 방콕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였음. 인천전략 목표 2(정치 과정 및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증진), 5(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및 교육의 확대), 9(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이행과 협약과 국내법의 조화 촉진), 10(하위지역, 지역, 지역 간 협력의 강화)의 이행 성과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임.

아. <의제 10> 기타 안전

○ UN 장애포괄전략(United Nations Disability Inclusion Strategy, UNDIS), ESCAP 장애포괄 정책 및 이행계획(2020-2021) 설명

- 사회개발국 차이차이 여성평등사회포용과장
 - 지난 6월 유엔 차원의 장애포괄전략(UNDIS)이 개발·공표되었음. 전략의 전반적 목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개발을 보장’하는 것이며,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맥락에서 장애포괄을 이루며, 4개 카테고리 및 15개 목표에서 장애포괄을 이루고자 함. 주요 카테고리는 1) 리더십, 전략 계획 및 관리, 2) 포괄성, 3) 프로그래밍, 4) 기관 문화로 분류됨. 연관된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이행 정도를 모니터링 할 것임.
 - 또한, 에스캅도 에스캅 차원의 장애포괄정책 및 이행계획(2020-2021)을 수립하여 50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하고자 함. 특히 고위 리더십-담당 주무부처-장애포괄 포컬 포인트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장애 포괄 문화를 정착 하고, 자신감과 지식을 축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기타 논의

- 파키스탄 정부: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종료 보고서 작성 설문조사 기간을 넉넉히 설정할 것을 요청함.
- DPIAP(아태지역국제장애인연맹): 타타 사회개발국장이 언급한 에스캅의 계획을 이행 하는 데 DPIAP가 지원 희망함을 표명하며, 에스캅 사무국이 본 회기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유해줄 것을 요청함.
- 데이지컨소시움: 온라인으로 처음 개최하는 워킹그룹회의가 성황리에 진행되었음을 축하함. 공유되는 내용은 문서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해주기를 요청함.
- 일본재단: 지난 9월 23일은 국제 수어의 날이었음. 이를 기념하여 세계농아인연맹과 협력하여 신탁기금을 조성한바 앞으로 이 기금이 잘 마련되어 수어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기를 희망함.
- APDF(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 한국 정부에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 했음. 선택의정서 비준은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하는 일인바 협조를 요청함.

자. <의제 11> 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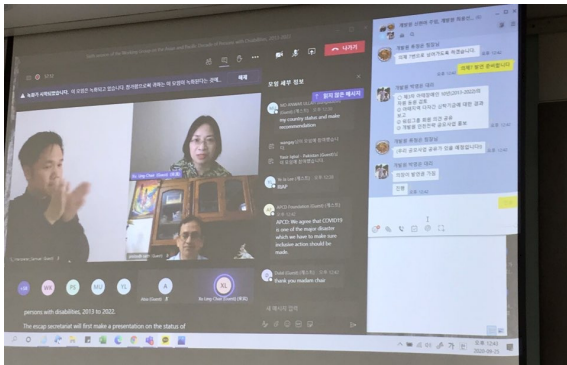
- 본회기 내 결정/권고사항 검토 및 채택: 본회기 내 결정 및 권고된 36개 조항을 전체 검토하고 이를 채택함. 검토 및 채택된 내용은 향후 에스캅 사무국 측의 회의 결과 보고 공유 시 함께 공유될 예정임. 또한 채택된 결정/권고사항은 차기 회의 개최 시 그 이행상황을 검토할 것임.
- 폐회사(스리니바스 타타 사회개발국장): 이틀 간 진행된 회의 동안 자리를 빛내준 워킹그룹 회원국 및 단체에게 감사를 표함.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임에도 더욱 소외되는 그룹인 장애인을 포괄하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주기를 당부함. 2년 남은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이니셔티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에스캅 사무국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음.

- 한국 정부(개발원): 2019년 장애인식개선 봉사단 VODA 홍보영상 송출

4

관련사진



워킹그룹회의의 실황



워킹그룹회의의 실황



워킹그룹회의의 1일차



워킹그룹회의의 1일차



워킹그룹회의의 2일차



워킹그룹회의의 2일차